

활보하는 반려견...아이들이 위험하다

공원·놀이터 개물림 사고 빈번...3년간 매년 1천여건 넘어 체력 작아 공격 타깃 쉬워...관리소홀 전주 처벌 강화해야

광주 도심에서 어린이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개들은 체력이 작아 어린이의 얼굴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습성이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반려견 사고 처벌 강화에도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 건수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오후 5시 4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A(8)양이 목줄이 풀린 개에 물렸다.

정강이를 물린 A양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다행히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었던 덕분에 큰 상처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을 공원 인근의 한 주택에서 기르던 개에 물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개 주인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한 공원의 자전거도로에서 유치원생인 고모(7)군이 목줄이 풀린 푸들에게 물렸다.

이날 견주인 김모(19)군이 잠시 나무에 묶어둔 사이 푸들의 목줄이 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허벅지를 물린 고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놀이터 등에서 개들이 어린이를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 “개를 키우는 견주는 물론 어린이의 보호자들도 개 관련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 개물림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다.

광주의 한 동물병원 원장은 “성인에 비해 피부가 약한 어린이의 경우 개에 심하게 물릴 경우 세균감염 등에 따른 사망 등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도 있다”며 주의의를 당부했다.

개물림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개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 2015년 1488건, 2016년 1019건, 2017년 9월 말까지 1168건 등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에서 개에 물려 병원에 실려간 환자는 2014년 155명, 2015년 138명 2016년 158명 등이었다.

지난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한 개

물림 사고는 2015년부터 매년 1000건이 넘어서고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개물림 사고까지 더하면 그 수는 훨씬 증가할 것이라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이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지난해 9월 말 접수된 총 3675건의 개 물림 사고 분석한 결과, 개에 물린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다친 부위는 얼굴로, 무려 39.7%나 됐다. 그 다음 손(30.8%)과 다리(16.2%), 팔(6.7%) 순이었다. 청소년과 성인의 부상 부위는 손이 40.2%로 가장 많았다.

사고를 낸 반려견의 대부분은 목줄이 풀려있거나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동물전문가는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육으로 반려견의 돌발 행동을 통제하고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개가 공격성을 보일 경우 소리지르거나 도망가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최대한 개와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편, 다음달부터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을 채우지 않고 풀어놓을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관리책임에 소홀한 견주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으로 주는 ‘개파라치’제도도 시행된다. /김현영기자 young@



눈썰매장 엄마 마음은 일곱살

임춘인 4일 오전 광주시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공원에서 엄마와 아이가 눈썰매를 타고 있다. /나영주기자 mi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9 해질 18:04 달출 23:13 달짐 10:31

봄은 먼 곳에 - 기온이 낮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눈	-9/-1	보성	눈	-12/-1
목포	눈	-8/-2	순천	구름많음	-10/0
여수	구름많음	-8/0	영광	눈	-11/-4
나주	눈	-12/-2	진도	눈	-7/-2
완도	눈	-7/0	전주	구름많음	-10/-2
구례	구름많음	-12/-2	군산	눈	-9/-3
강진	눈	-9/0	남원	구름많음	-12/-3
해남	눈	-10/-1	홍산도	눈	-5/1
장성	눈	-12/-2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5~3.0
	면바다	북서~북	2.0~3.0	북서~북	2.0~4.0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2.5	북서~북	1.5~2.5
	면바다(동)	북서~북	2.0~3.0	북서~북	1.5~3.0
남부	면바다(서)	북서~북	2.0~4.0	북서~북	2.0~4.0

◇ 생활지수

매우높음	눈
높음	눈
보통	눈
낮음	눈
매우낮음	눈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10:33	05:28	23:01	17:54
여수	06:07	00:10	18:30	12:29

◇ 주간 날씨

6(화)	7(수)	8(목)	9(금)	10(토)	11(일)	12(월)
☁	☁	☁	☁	☁	☁	☁
-9/-3	-9/2	-4/7	-3/7	-1/7	-3/1	-4/4

서지현 검사 악의적 비방 글 난무

광주출신 빗대 흥어 지칭·여성 차별 온라인 게시물 넘쳐

광주 출신인 서지현 검사가 검찰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이후 서 검사를 ‘흥어’로 지칭하고 외모를 거론하는 등 지역·여성 차별을 서슴치 않는 악의적 게시물들이 온라인에 잇따르고 있다.

4일 여성혐오 사이트로 알려진 ‘일간 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이같은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예쁘다”, “별로 안 예쁘던데 왜 건드렸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공부 잘하게 생겼다” 등 성희롱으로 간주할 만한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서 검사가 호남 출신인 점을 거론하거나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회원일 것으로 추측하며 ‘흥어’, ‘메갈녀’ 등 지

역·여성차별 표현을 일삼는 글도 다수 있다. 일부 회원들은 “정치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현직 검찰 최고위급 간부들까지 저격하려고 나온 것 같다”는 등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남초 성향으로 알려진 ‘추식 갤러리’ 등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유저 페이지 등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성희롱·여성차별 게시글이 다수 검색됐다.

서 검사측 법률대리인은 “서 검사가 온라인상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 검사가 호남 출신인 점을 거론하거나 여성주의 사이트 ‘메갈리아’ 회원일 것으로 추측하며 ‘흥어’, ‘메갈녀’ 등 지

전국 찜질방 3곳 중 1곳은 화재 무방비

올겨울 잇따르는 대형 화재 참사에도 불구하고 전국 찜질방의 31% 이상이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이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전국 찜질방 6474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2045곳(31.6%)이 소방안전시설 불량업소로 평가됐다.

특별조사 점검 결과를 보면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나 잠금행위, 유도등 점등 불

량·미설치 등 피난설비 불량률이 2364건으로, 전체 지적사항(5704건)의 41.4%에 달했다. 특히 작년 12월 제천 화재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비상구 잠금행위가 여전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소화기 노후나 미비, 감지기 작동불량, 소화판프 작동불량 등 소화설비 문제가 1337건(23.4%) 지적됐다. /연합뉴스

국방부특조위 5·18 진상조사결과 7일 발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5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오는 7일 결과를 공개한다.

특조위는 4일 “현재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권 분량 종합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완성된 보고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문재인 대통령에게 차례로 보고된 뒤 7일 국방부 브리핑룸

에서 국민에게 공개된다.

특조위는 국군 보안사령부(현 기무사령부) 미공개 자료 8000여쪽과 3급 비밀로 분류됐던 공군본부 비밀해제 문건 등 그동안 수십만 쪽에 이르는 5·18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해 왔다. 또한 5·18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부대를 대상으로 대대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관련자 면담도 꾸준히 이어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교육청 최초 남자 유치원교사 탄생

광주시교육청 개청 32년 만에 첫 남자 유치원교사 임용시험 합격자가 나왔다.

임정섭(25·사진)씨는 시교육청이 발표한 ‘2018학년도 공립 유치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합격한 유치원교사 27명 가운데 유일한 남자인 뿐 아니라 1986년 시교육청 개청 이후 최초 남자 합격자다. 임씨

는 전남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복수전공으로 유아교육을 선택했다. 그는 “원래 전공은 교육학이지만, 아이들을 좋아해 유아교육을 복수전공으로 선택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산 공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